



✓ 진로교육 바로 알기

이 시대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은?

김광호 (EBS '마더 쇼크' 연출자)

10년 넘게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다 보니 외부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 관련 행사나 강연회 등에 참석할 기회가 종종 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면, 그 내용도 훌륭하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 부모님들의 실제 이야기가 더 감동스럽고 의미심장할 때가 많다. 부모님들이 전하는 경험담들은 마치 백과사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하기만 하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오른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부모님들이 전하는 경험담은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도 자녀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이유를 여쭙보면, 대부분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도 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계속 공부해야 함을 강조하신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이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유지하려는 부모의 경직된 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이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사람들이 맺는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본능'과 '관계'가 이중적으로 교차하는 관계다. 갓난아기들은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아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한다. 때가 되면 젖을 물리고, 예방 접종을 하고, 예쁜 옷을 입히는 등 이 모든 양육 과정이 부모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진다. 즉, 이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는 '관계'보다 '본능'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몸도 마음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자란다. 하지만 부모들은 생후 2~3년 동안 익숙해진 자신들의 눈높이와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 아니, 아예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본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졌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아이와 부딪치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다. '미운 4살'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부모의 눈높이에 대한 아이와의 첫 번째 부딪침인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비록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 이제 나도 엄마, 아빠 눈높이가 아닌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요!"

이런 가정을 해보자. 우리 주위에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심중팔구 관계를 끊든지, 거리를 두려고 할 게 분명하다. 부모·자녀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제대로 된 인간관계'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변화와 깨달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 아이를 직장이나 사회에서 처음 만났지만 인상이 괜찮아 꼭 한 번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이라 생각해보시라. 그러면 뭘 조심해야할지, 내 생각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중2병'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녀의 사춘기를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특히 갈등이 심한 가정들을 촬영하다 보면 한 가지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데, 다른 아님 자녀의 일상에 대한 부모의 간섭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 '단정한 옷 입어라', '숙제해라' 등등의 잔소리를 쉴 새 없이 쏟아낸다. 이미 아이에게 넘겨줘야 할 일상의 선택권조차 꼭 부여 잡고 신생아 시기의 부모 역할에만 멈춰 있으니,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

이제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만일 아직도 '관계'가 아닌 '본능'으로 자녀들의 일상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일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춰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팀 닥터가 되려면 꼭 의대를 나와야 하나요?

Q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2 아들의 꿈은 팀 닥터가 되는 것입니다. 의대에 갈 성적은 되지 않는데, 팀 닥터가 되려면 꼭 의대를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팀 닥터는 스포츠 구단 등에서 고용하는 전문의료인으로서, 선수들이 경기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 시 수술·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대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등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팀 닥터로 고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의대에 진학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직업이나 학과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구단에서는 팀 닥터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은 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피지컬 트레이너(physical trainer)**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너는 선수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 및 체력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훈련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과나 물리치료학, 재활치료학, 운동건강관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트레이닝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자격이나 연수,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자녀가 진로목표를 구체화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에너지」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과 관련 학과를 소개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직업 소개 :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 직업 개요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세계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분야의 특성상 친환경에너지, 부품, 시스템, 설치, 마케팅 등 여러 분야를 함께 조율, 통합하는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바이오에너지연구 및 개발자, 해양바이오에너지연구원, 태양열연구 및 개발자, 풍력발전기설계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직업이 있습니다.

☞ 직무 내용

- 세부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기술개발, 연구, 설비,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석유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 관련 흥미 및 적성

-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끈질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 시대를 앞선 직관력, 지구력과 끈기, 기술과 시장을 접목하는 통합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위크넷)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교 학과 소개 : 신재생에너지과]

☞ 학과 특성

- 햇빛, 물, 쓰레기, 바람 등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 에너지에 관련된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 주요 교육 내용

- 전기회로 : 회로의 개념과 일반 선형회로망을 이해하여 현장의 실무내용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신재생에너지공학 : 에너지의 기초이론, 종류, 원리 등에 대해 학습하고 활용 기술을 이해
- 마이크로프로세서 : 마이크로프로세서 중 장치·통신·프로세서를 제어하는 최신 컨트롤러를 배우고 실제 제어 기술을 실습

☞ 학과 준비 사항

- 공학이나 기술 쪽의 분야를 공부하려면 우선 논리적 사고나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함. 또한 최근 국내외 경제 논리와 높은 관련성을 생각하면 이런 분야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됨.

☞ 졸업 후 진출 분야

- 기업체 : 태양광 및 차세대 전지 분야, LED 관련 산업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업체 및 개발업체, 태양열·풍력·지열 등 관리 업체,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업체, 에너지 및 방사능 관련 업체
- 정부 및 공공기관 : 에너지 관련직 공무원

(출처: 2014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